

# 폭염에도 잘 자란 '장수사과'

경매시장서 품질 인정받아  
최고 가격으로 판매 완료  
출하 농가 소득증대 기대

올해 계속되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최고 품질의 장수사과가 수확되고 있어 획기적인 농가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12일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 봄철 저온과 7~8월 지속된 폭염과 가뭄, 태풍 솔릭 등 이상기상으로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정도 감소된 것으로 조사돼 예상했던 농가들의 어려움이 예년보다 뛰어난 사과품질로 이를 해소하게 됐다.

장수읍에서 20여 년간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사과농가 A씨는 지난 10일 2.7t에 재배한 홍로사과를 출하하며 마음을 좋았다.

사과재배기술과 품질관리에 나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판장에서 한 해 농사지는 상품에 가격이 결정되기까지는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고 올해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올해 계속되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최고 품질의 장수사과가 수확되고 있어 획기적인 농가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달리 11월의 날 경매시장에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으면서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됐다.

A씨는 "사과 전업농으로 자신의 과일 일부를 활용해 수형구성과 시비방법 등 시험 연구로 사과 재배 노하우를 축적했고 올해는 군에서 운영 중인 품질 관리를 통한 현장 컨설팅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 농가 스스로의 시험연구로 이상기후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다.

장수사과는 해발 400m 이상에 고원 지역으로 4~9월까지 연평균 기온이 13~21℃로 사과 수확기 작색과 당도가 월등하고 과실이 단단하며 감칠맛이 매우 뛰어나 올해 이상기후 3중고에도 불구하고 전국 제일의 홍로사과로 평가받고 됐다.

장수농기계센터 서정원 소장은 "장수군 사과 산업발전에 관한 운영조례를 제정해 고품질 과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진안 천연가스 공급 시작... 난방비 걱정 뚝

총사업비 480억원 투입  
2021년까지 단독주택 확대

진안군은 12일 LNG 도시가스가 공급됨에 따라 진안을 진안 나들목(IC) 인근 한국가스공사 진안관리소에서 천연가스 공급 개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안호영 국회의원, 이항로 진안군수, 신갑수 군의장,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 박성수 한국가스공사 공급본부장과 사업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총사업비 480억원(국비 420억원, 지방비 60억원)이 투입된 진안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이항로 군수의 민선6기 핵심공약 중 하나다.

진안지역은 지난 2010년 정부의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공급 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성과 경제성 부족으로 수년째 도시가스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 군수는 민선6기 진안군수로 취임하자마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고 국정 목표로 정하고 도시가스 공급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했다.

한국가스공사와 중앙부처, 도 관련 부서를 수시로 찾아 필요성을 역설했



진안군은 12일 LNG 도시가스가 공급됨에 따라 진안을 진안 나들목(IC) 인근 한국가스공사 진안관리소에서 천연가스 공급 개통식을 가졌다.

고, 진안군 배관시설과 점암시설 등 설치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방안까지 동원하는 등 적극 나섰다.

그 결과 2015년 1월 도시가스사업자 지정 신청 공고에 군산도시가스가 신청했고 도 사업자 지정 검토를 거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11월 진안군과 전북도, 군산 도시가스는 진안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17년 4월 백운면 평정리 정송재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도시가스는 우선 진안을 다세대 공

동주택 1,364세대에 공급되며, 향후 수요조사를 실시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 "농촌에 살면서도 도시보다 비싼 에너지 비용을 지출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공급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기업유치, 투자유치에도 탄력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스 참가 및 우승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 취득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버머리 지역 취득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 “전통문화 보존·계승 위해 최선”

장수향교 추기 석전대제  
제례봉행식 거행 뜻 기려

장수에서 '추기 석전대제 제례봉행식'이 거행됐다.

장수향교(전교 양기홍)는 12일 장수향교 대석전(보물 제272호)에서 공자탄신 2569주년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석전대제에서는 장영수 장수군수가 초헌관, 김종문 군의회의장이 아헌관, 정재봉 장수경찰서장이 종헌관을 맡아 제사를 올리고 관내 향교 유림과 지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그 뜻을 기렸다.

장수향교 양기홍 전교는 "이번 석전대제를 통해 유교정신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공자를 비롯한 선贤先賢의 유덕을 기리고 가르침을 받받아 지역의 근간을 다지는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인 석전대제는 유교적 제사 의식 중 규모가 가장 크며, 유교 참시자인 공자와 안자, 증자, 맹자 등 유교 성인과 우리나라 18분의 성현들에게 제사는 제사로서 매년 음력으로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거행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매아리

### 진안, 지적재조사사업 휴일 반납

진안군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진안을 휴일노동지구, 부귀면 거석1,2지구 관외 거주자 268명을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최근 추석을 맞아 관외 거주자 중 발초 등을 위해 고향을 방문하거나 주말을 이용해 사업지구를 찾는 토지소유자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안장수지사 지적재조사 측량팀 합동으로 2개 조를 편성해 9월부터 10월까지 휴일 근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주말과 공휴일 토지 경계협의의 이용하려면 각 지구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사전에 일자를 지정해 진행하면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올해 진안군은 전라북도로부터 1,734필지 3개 사업지구를 지정 받아 현재 80%정도 현지 측량을 완료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힘들더라도 올 연말 안에 주민이 만족하는 경계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3-430-2263, 2264)으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소하천 정비, 23억6000만원 뚫는다

무주군, 추가예산확보 주력  
호안정비·친수공간 조성 등

무주군이 2019년 무주군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예산 23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안성면 도촌 소하천과 부남면 대수골 소하천, 안성면 여우내소하천 등 3개 지구 3.25km 구간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며, 적상면 흘착골 소하천 1.35km과 안성면 오두재 소하천 1.11km 등 2.46km 구간을 신규 사업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소하천에서는 2021년까지 호안정비와 노후시설물 재 가설, 친수 공간 조성 등이 진행된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박은석 하천담당은 "무주지역 소하천 344개소 446km 중 수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에 대한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추가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유지관리까지 효율적으로 진행해 재해를 예방하고 군민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15일 '추억의 코미디' 선보여

오후 2시 안천면 소공원  
엄용수씨 사회로 진행

진안군은 12일 '2018 안천 농산물 큰장터' 기간인 오는 15일 오후 2시 안천면 소공원에서 원로 코미디언들이 출연하는 '웃는날 좋은날 코미디 쇼' 공연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가 주관한다.

코미디언 엄용수씨 사회로 진행되며

원맨쇼, 추억의 코미디 등 다양한 구성으로 꾸며져 군민들과 관광객에게 즐거운 음악과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명창 이명희, 5인조 여성그룹 엘로비가 특별 출연해 더욱 풍성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을 선물하고, 청년층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회도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해 웃음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